현대차, 제네시스 생산라인 멈췄다… 신차 인력 배치 '갈등'

울산 5공장, 시험차 투입 놓고 충돌
맨아워 협의 난항에 생산 차질 발생
스마트팩토리 전환에도 갈등 우려
내수 판매 15.6% 감소에 악재 겹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내수 판매 부진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울산공장 제네시스 생산라인마저 노사 갈등으로 멈춰 서면서 악재가 겹쳤다. 신차 투입을 둘러싼 인력 배치 문제가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울산공장의 스마트팩토리 전환과 생산 효율화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 5공장 1라인 제네시스 의장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가동이 멈춘 상태다. 회사가 제네시스 G80 하이브리드 시험 차량을 생산라인에 투입하려 하자 노조 대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해당 부서 조합원은 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차 양산을 앞두고 진행된 맨아워(MH·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 협의다. G80 하이브리드와 G90 부분변경 모델의 양산을 앞두고 회사 측은 공정 변화에 따른 인력 배치와 작업량 조정을 논의하려 했지만, 노조 현장 대의원들이 생산라인 투입 인원 감소 가능성을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문제는 이번 노사간 갈등이 단순히 특정 차종의 생산 일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차는 울산공장을 미래 모빌리티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생산공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가 공개한 로드맵을 보면 2026년 울산 EV 신공장을 시작으로 제조 AI를 확대하고, 2030년 가상 기반 자율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한 뒤 2032년 이후 휴머노이드와 전면적인 자율화 기술을 미래 신공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자동화 설비와 로봇 도입, 생산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생산 효율화가 기존 인력의 업무 변화나 인원 재배치로 이어질 경우 맨아워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스마트팩토리는 단순히 설비를 자동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 방식과 작업 구조 전반을 바꾸는 과정이다. 신차 투입 때마다 공정별 적정 인력과 작업량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만큼 노사 간 사전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생산 차질이 상시적인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전동화와 하이브리드 전환에 따른 생산라인 변화까지 고려하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사태로 인한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내수 시장에서 판매 감소와 수요 둔화에 대응해야 하는 데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관세와 경쟁 심화 등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현대차는 올해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올해 1~10월 누적 국내 판매량 49만 7223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래 생산체계 전환에 앞서 현대차 노사 간 인력 운영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팩토리 전환이 투자와 설비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생산 효율화에 따른 고용과 업무 변화에 대한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와 달리 인력 재배치 문제로 생산라인 자체가 멈춰 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생산시설과 작업환경에 대한 노조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공정 효율화와 인력 운영 등 경영 판단까지 제약받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생산을 지속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팩토리 전환과 미래차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 모두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럽 냉장설비 해킹에 국내가전 보안 '주목'

삼성·LG, 제품별 보안지원 기간 달라
EU, 5년 이상 지원·종료일 공개 의무
국내 최소 지원기간 없어 기준 마련 과제

유럽에서 냉장설비 해킹이 잇따르면서 국내 가전의 판매 후 보안지원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 일부 가전은 출시일부터 지원기간을 산정해 구매 시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진다. 특히 현행 보안인증 규정에 공통 최소 지원기간이 없는 만큼, 이를 명시하고 구매 전에 지원 종료일을 공개하는 방안이 과제로 꼽힌다.

3일 미국 보안업체 센시스(Censys)에 따르면 스웨덴과 벨기에, 아일랜드 등에서 유통 매장의 냉장·냉동설비를 겨냥한 공격이 확인됐다. 아일랜드 식품 유통업체 머스그레이브는 슈퍼밸류 매장 13곳에서 냉장설비에 이상이 생겨 일부 냉장식품 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프랑스에서도 냉장설비 원격 제어장치가 해킹됐다. 프랑스 침해사고대응팀(CERT-FR)은 보안 패치 지원이 끝난 장비는 초기화한 뒤에도 다시 공격받을 수 있다며 외부 접속 차단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2021년에는 아파트 월패드 해킹으로 일부 가정의 실내 영상이 유출됐고, 지난해에는 인터넷 카메라에서 탈취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삼성·LG 일부 가전, 출시일부터 업데이트 지원

문제는 국내 가전업계의 판매 후 업데이트 지원기간이 제품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일부 냉장고와 세탁기에 출시일부터 최대 7년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LG전자는 영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연결형 냉장고의 보안 업데이트 지원기간을 출시일부터 5년으로 제품 페이지에 명시했다.

제품별 지원 정책과 별도로 국내에서는 자율 보안인증을 통해 업데이트 체계를 평가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증을 신청한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업데이트와 기술지원 체계를 심사한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인증 조항에는 연결 가전에 공통으로 적용할 최소 지원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EU는 지원 종료일 공개 의무화… 국내는 공통 기준 과제

유럽연합(EU)은 사이버복원력법(CRA)에 제조사의 판매 후 보안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제조사는 제품의 예상 사용기간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5년 이상 보안을 지원해야 한다. 예상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이면 그 기간에 맞출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 전에 남은 지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료일도 공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사물인터넷 기기에 공통 보안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교통 등 고위험 분야부터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통 기준을 연결 가전의 판매 후 관리까지 확대할 경우, 제조사가 취약점을 수정해야 하는 최소 기간과 구매 전 지원 종료일 공개 여부가 쟁점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엔솔, 북미 ESS 날개달고 분기 최대 매출

3분기 매출 9.6조·영업익 7560억
美 보조금 제외해도 3391억 흑자

LG에너지솔루션이 에너지저장장치(ESS) 판매 급증에 힘입어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북미를 중심으로 ESS 출하가 늘면서 공장 가동률이 개선됐고 영업이익도 크게 늘었다. 빅테크 기업과 첫 ESS 직접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수주도 이어지면서 북미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조6434억원, 영업이익 7560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9%, 영업이익은 25.7%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7.6%, 영업이익은 567.3% 늘었다.

이번 실적 개선은 북미 ESS 출하 확대가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3분기 ESS 출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서 ESS 셀 생산 라인과 컨테이너형 시스템 조립 공정인 신규 '링크(Link)' 라인을 추가로 가동해 현지 공급 대응력을 높였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판매 물량도 파우치형과 원통형 모두 늘었고 폴란드 공장 가동률 개선과 ESS 신규 양산 공장의 생산성 향상까지 더해지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북미 생산 보조금 효과를 제외하고도 흑자를 냈다. 3분기 영업이익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북미 생산 보조금 4169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제외해도 339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보조금 없이도 배터리 사업 자체에서 이익을 내는 구조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

기아, 日 PBV 시장 공략

2030년까지 PV5 1000대 공급 추진

기아가 일본 여객 운수업체 MK 홀딩스와 협력해 현지 목적기반차량(PBV) 시장 공략에 나선다. 택시와 공항 픽업 등 운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차량 공급을 확대하고 현지 판매·정비망을 구축해 일본 상용 전기차 시장 진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최근 서울 양재사옥에서 MK 홀딩스와 'PBV 일본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아는 올해 말까지 MK 홀딩스에 PV5 40대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누적 1000대 공급을 추진한다. 현재 PV5 4대는 지난달 말부터 교토 지역에서 MK택시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한국타이어, 북미 SUV·픽업트럭 시장 확대

美 세마쇼서 다이나프로 4종 전시

한국타이어가 북미 최대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서 SUV·픽업트럭용 타이어를 선보이며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한국타이어는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세마쇼'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세마쇼는 미국 특수장비시장협회(SEMA)가 주관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박람회다. 자동차 부품과 튜닝 분야의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행사로, 한국타이어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참가한다.

한국타이어는 야외 전시장에서 SUV 전용 타이어 브랜드 '다이나프로' 부스를 운영한다. 오프로드용 '다이나프로 MT2'와 '다이나프로 AT2 익스트림', '다이나프로 XT'를 비롯해 온로드용 '다이나프로 HT2' 등 4개 제품을 전시한다. 전천후 랠리용 타이어 '다이나프로 R213'을 장착한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 공식 랠리카와 다이나프로를 적용한 오프로드 커스터마이징 차량도 전시한다. /이승혁 기자 sh85@



2026 세마쇼 한국타이어 부스. /한국타이어

대한항공, 美행 승객 에볼라 서약서 의무화

美 CDC, 바이러스 유입 차단 강화
21일 내 콩고 방문 땐 탑승 제한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에볼라바이러스 감염과 사망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보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치명률이 50%에 육박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자 미국이 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으며, 국내 항공업계도 미국행 승객을 대상으로 감염 위험지역 방문 이력 확인 등 방역 조치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오는 4일 오후 1시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9066명, 사망자는 4381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48.3%에 달한다.

CDC는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에게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과 미국을 경유하는 환승객도 제출 대상이다.

DRC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환승한 경우에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해도 탑승이 제한된다.

/양성운 기자